

현안과 과제

■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목 차

■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공시의 경제적 영향	4
3. 시사점	7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동 향 분 석 팀 : 오 준 범 선 임 연 구 원 (2072-6247, jboh19@hri.co.kr)

Executive Summary

□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 개 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2011년 이후 서비스업 신규취업자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동시장을 떠받치던 제조업의 취업자수가 2016년 들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30세 이상 실업률은 2~3%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0세 미만 청년의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 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이 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수는 2011년 약 14만 3천 명에서 2017년 22만 8천 명으로 확대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시험 준비 인구도 2011년 3.3%에서 2017년 5.2%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공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공시의 경제적 효과

공시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역기능은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먼저 생산의 기회비용은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경우 발생할 생산액으로 산정한다. 소비의 기회비용은 만약 취업이 되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액이다. 한편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생활비 등 개인 소비 측면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정부에서 지출하는 시험 비용은 개인들의 시험 응시료로 충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한다. 따라서 공시생의 경제적 영향은 경제적 순기능적 지출에서 역기능적 기회비용을 합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추정의 전제로는 먼저 공시생들이 모두 취업이 가능하도록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다만 공시생의 교육수준이나 능력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취업하는 인력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역기능적 기회비용을 추정하면 생산의 기회비용이 약 15조 4,441억 원, 소비의 기회비용은 약 6조 3,249억 원 수준이다. 한편 순기능적 지출은 4조 6,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제적 순기회비용은 17조 1,429억 원으로 2016년 명목 GDP 대비 약 1.1% 규모이다.

< 공시의 경제적 효과 >

구 분		비용 및 지출액(억 원)
경제적 순기회비용		△ 171,429
	역기능적 기회비용	△ 217,689
	생산 기회비용	△ 154,441
	소비 기회비용	△ 63,249
순기능적 지출		46,260
	소비 (공시생 소비지출)	46,26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공시생이 증가한 근본 원인은 경제 내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있다.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시생의 증가는 청년층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 주된 원인이므로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청년일자리에 대해 임금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1. 개요

○ 2016년 노동시장은 산업별로는 제조업,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는 모습

- (산업별) 2011년 이후 서비스업 신규취업자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동시장을 떠받치던 제조업의 부문이 2016년 들어 크게 위축
 - 서비스업의 신규취업자수는 2011년 약 37만 9천 명에서 2016년 약 33만 명으로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 제조업의 신규취업자수는 2011년 약 6만 3천 명에서 2015년에 15만 6천명으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 약 5천 명이 감소하며 크게 위축되는 모습
 - 이에 따라 전체 노동시장의 신규취업자수도 2011년 약 41만 5천 명에서 2016년 약 29만 9천 명으로 줄어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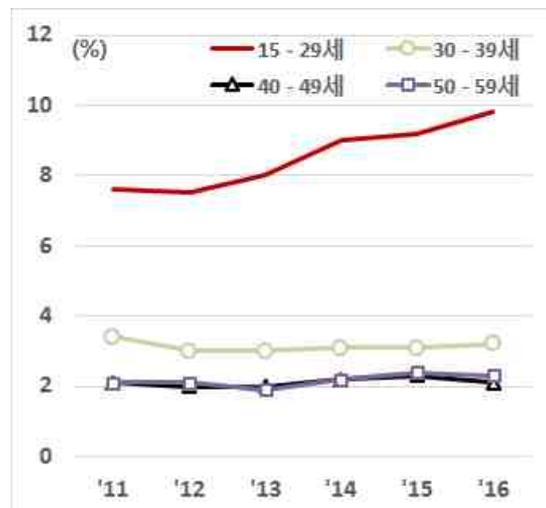
- (연령별) 2011년 이후 노동시장에서 30세 이상의 실업률은 2~3%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0세 미만 청년의 실업률이 급증하는 모습
 - 30대의 실업률은 2011년 3.4%에서 2013년 3.0%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6년 3.2%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고, 40대 이상은 2.0~2.5% 수준을 유지
 - 한편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2011년 7.6%에서 2016년 9.8%로 뚜렷하게 급증하는 모습

< 산업별 신규취업자수 증감 >



자료 : 통계청.

< 연령별 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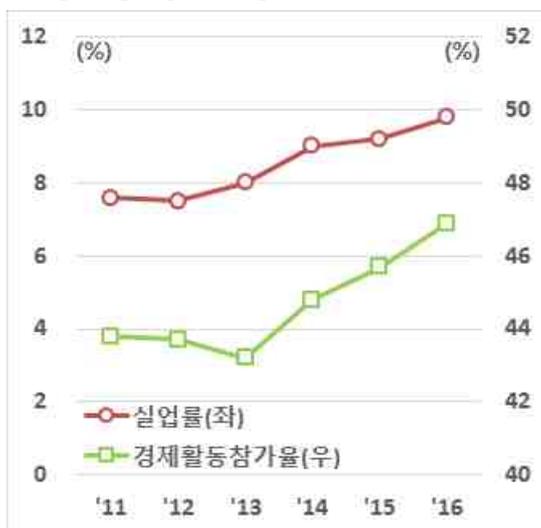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특히 청년 노동시장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실업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신규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수준

- 2011년 이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
 -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43.8%에서 2016년 46.9%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임
 - 한편 청년층의 실업률도 2011년 7.6%에서 2016년 9.8%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신규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취업준비인구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청년층일 것으로 추정
 - 국내 취업준비인구는 2011년 약 57만 명 수준에서 2016년 69만 명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함
 - 특히 2017년 1월에는 취업준비인구가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하여 약 69만 2천 명으로 급증함
 - 이는 청년층에 대한 신규채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더해진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 취업준비인구 >



자료 : 통계청.

○ 경제 내 고용창출력 저하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시생과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급증

- 2011년 이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공시생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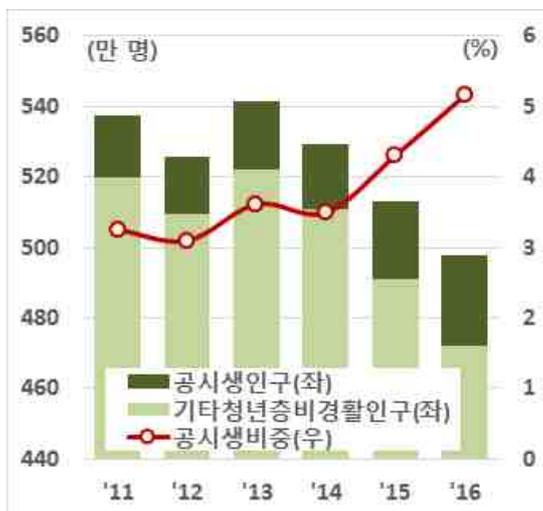
-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537만 4천 명에서 2016년 498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한편 일반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1년 약 18만 5천 명에서 2016년 25만 7천 명으로 증가함

- 이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응시자수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는 모습

- 국가공무원 9급 응시자수는 2011년 약 14만 3천 명에서 2017년 약 22만 8천 명으로, 7급 응시자수는 같은 기간 약 5만 7천 명에서 약 6만 7천 명으로 급증함
- 한편 경쟁률은 공무원시험 응시자수보다 선발인원이 더 빠르게 늘어서 다소 감소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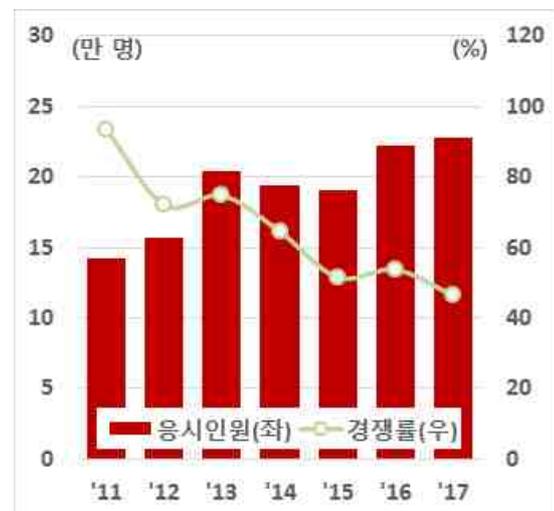
- 본 보고서에서는 공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

< 청년 비경활 인구 중 공시생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청년은 15~29세를 의미함.

< 국가공무원 9급 응시자수와 경쟁률 >



자료 :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2. 공시의 경제적 영향

○ 공시의 경제적 순기능과 역기능

- 공시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기능(생산 및 소비 기회 비용)과 순기능(소비)으로 구분
- (역기능: 생산 및 소비 기회비용)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의미
 -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의미함
 - 또한 생산 측면에서의 기회비용과 만약 취업이 되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 측면의 기회비용이 추가로 포함됨
- (순기능: 소비)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생활비 등 개인 소비 측면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
 - 공시생들이 지출은 민간소비에 해당하며 경제 내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존재함
 - 단, 정부에서 지출하는 시험 비용은 개인들의 시험 응시료로 충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함
- 따라서 공시생의 경제적 영향 분석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순 기회비용의 추정식을 통해 계산됨
 - 경제적 순 기회비용 = 순기능적 지출 - 역기능적 기회비용

○ 추정의 전제

-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여 현재 공시생들이 취업이 모두 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

- 최근 공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시생 증가가 경제 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비현실적인 가정을 상정함
 - 다만 공시생의 교육수준이나 능력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채용되는 있는 인력의 평균적 수준보다 더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음
- 공시생의 범위는 2016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집계된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498만 명 중 5.2%인 25만 7천 명
 - 공시생 1인 당 연간 지출액은 약 1,800만 원 수준
 -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시생의 지출 범위는 월 100~150만 원이고, 본 연구에서는 연간 1800만 원 수준으로 가정하고 경제적 순비용 계산에 이용함
 - 취업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 전체로는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이 동일함을 가정

○ 추정 방법: 경제적 순 기회비용 = 순기능적 지출 - 역기능적 기회비용

① 역기능적 기회비용: 생산 및 소비 기회비용

- 손실 부가가치액 = 생산 기회비용 + 소비 기회비용
 = 공시생수 ×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 공시생수 × 1인당 소비 지출액

② 순기능적 지출: 소비

- 실현 부가가치액 = 공시생 소비 지출 + 정부 소비지출
 = 공시생수 × 공시생 1인당 평균 비용

○ 추정 결과

① 역기능적 기회비용: 생산 및 소비 기회비용 = 21조 7,689억 원

- 생산 기회비용: 공시생수 ×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 15조 4,441억 원

· 공시생수 = 25만 7천 명

·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 명목GDP / 취업자 수

※ 명목GDP(한국은행 국민계정, 2015년 기준) = 1,558조 5,916억 원

※ 취업자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기준) = 2,593만 6,000명

- 소비 기회비용: 공시생수 × 1인당 소비 지출액 = 6조 3,249억 원

· 공시생수 = 25만 7천 명

· 29세 이하 가구(가구주)의 1년간 평균 가계소비지출액(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년 기준) = 12개월 × 205만 860원

② 순기능적 지출: 공시생 소비지출 = 4조 6,260억 원

- 공시생 소비 지출 = 공시생수 × 공시생 1인당 평균 비용 = 4조 6,260억 원

③ 경제적 순기회비용 : 역기능적 기회비용 - 순기능적 지출 = 17조 1,429억 원

- 이는 2016년 명목GDP 대비 약 1.1% 규모

< 공시의 경제적 효과 >

구 분		비용 및 지출액(억 원)
경제적 순기회비용		△ 171,429
	역기능적 기회비용	△ 217,689
	생산 기회비용	△ 154,441
	소비 기회비용	△ 63,249
	순기능적 지출	46,260
	소비	46,26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 시사점

- 공시생이 증가하게 된 근본 원인은 경제 내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있음
- 공시생의 증가는 경제주체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판단
 - 경제적 기회비용 측면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어 단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에서 큰 규모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발생
 - 또한 경제 내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까지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첫째, 공시생의 증가는 청년층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 주된 원인이므로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신규일 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
-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업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
- 벤처창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기업 성장을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둘째, 청년일 자리에 대해 임금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비정규직 고용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에 주력
-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확대하여 일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R&D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
- 정부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직무 중심적인 취업교육을 확대

셋째,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 청년 노동시장은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심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직업 현장 중심 교육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
-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뿐만 아니라 직무능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학제개편, 선발인원 조정 유도가 필요
- 또한 기업과 정부가 재직자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 육성에 주력 **HRI**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오 준 범 선 임 연 구 원 (2072-6247, jboh19@hri.co.kr)